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케이블TV '리얼뷰티쇼'

탤런트 유진 MC 발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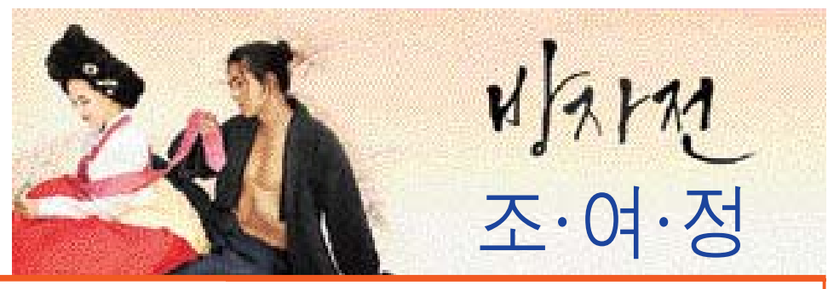
탤런트 유진(29)이 여성 라이프스타일 채널 '올리브'가 다음달 초 선보이는 리얼뷰티쇼 '겟잇 뷰티(Get it Beauty)'의 MC로 발탁됐다.

'겟잇 뷰티'는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는 목표 아래 20~39세 여성의 피부에 와 닿는 정보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올리브는 밝혔다.

유진은 '신데렐라 언니' 후속으로 9일 첫선을 보이는 KBS 2TV '제빵왕 김탁구'의 여주인공도 맡았다.

"수많은 점을 찍어보다가 조금 큰 점을 찍은 것 같아요."

영화 '방자전'에서 춘향역을 소화한 배우 조여정은 최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다가 나이 서른에 첫 주연배우 자리를 꿰찬 소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첫 주연·첫 노출연기…욕망의 화신으로

"순정파 춘향이는 잊으세요"

조여정은 1997년 잡지 모델로 데뷔했다. 이름을 알린 건 '뽀뽀뽀'의 뽀미 언니다. 이후 시트콤 '나 어때?'(1999)로 데뷔한 그는 '남의 속도 모르고'(1999) 등 지금까지 10여편의 드라마에서 활약했다.

영화 출연은 '방자전'이 세번째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시켜줘'(2002), '흡혈형사 나도열'(2006)에 출연했지만 극을 이끌어갈 정도로 비중있는 역할은 아니었다. 영화에서 주연으로 나오는 건 '방자전'이 처음.

조여정은 '방자전'에서 방자를 사랑하나 야망 때문에 몽룡을 택하는 '춘향'을 맡았다. 방자와 사랑을 나눈 후에는 몽룡이와 맺어지게 해달라며 방자에게 각서까지 쓰게 하는 인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고지순한 춘향과는 거리가 멀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면의 욕망에 충실한 인물입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순정도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 모든 걸 다 던지죠. 춘향을 연기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정도로 매력적인 캐릭터였어요."

'방자전'은 여러모로 그에게 의미있는 영화다. 첫 주연작이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노출연기를 했기 때문이다. 조여정은 김주혁과 밀도 높은 정사장면을 찍었다.

"영화의 맥락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면들이었어요.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시나리오가 좋은데다가 같이 하는 배우들이 모두 검증된 배우들이잖아요. 감독님의 전작도 좋아하고, 같이 한 류승범, 김주혁 씨도 다 연기가 뛰어난 분이어서 안할 이유가 없었죠."

조여정은 그간 청순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대중에 어필했다.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도 노출연기가 조금은 겁나지 않았을까.

"대중이 생각하는 이미지에 별로 구애받으며 살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배우일 뿐입니다. 귀여운 이미지, 혹은 순수한 이미지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미지에 집착했으면 영화를 아마 찍지 않았겠죠. 그저 좋은 작품을 만나서 기쁘고 들떴을 뿐입니다."

그는 4년만에 영화에 다시 도전했다. 드라마는 빨리 촬영이 진행되는 반면 영화는 비교적 천천히 진행된다. 속도와 호흡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오랜만에 하는 영화 연기인데 어렵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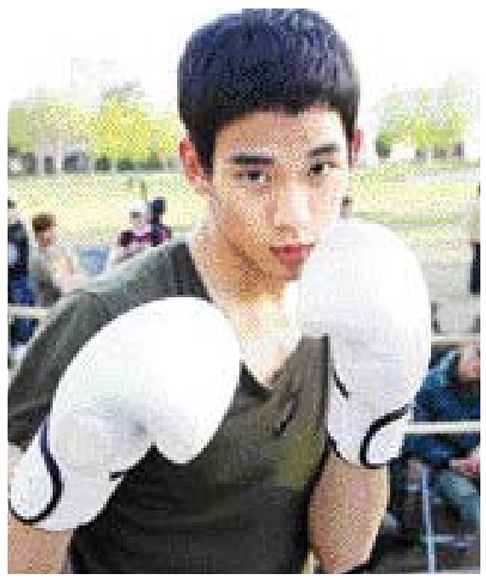
"제가 별로 바쁜 연기자가 아니어서 한번도 휴학을 하지 않고 학교(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연극을 했죠. 기본적으로 연기는 무대연기가 기본입니다. 연극을 꾸준히 해온 덕택에 오랜만에 도전했지만 영화연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함께 연기한 류승범에 대해서는 "순간 몰입도와 감각이 매우 뛰어난 연기자"라고 평했고 김주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연기자"라고 말했다.

자신의 연기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잠시 머뭇거리며 "80점"이라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그는 작년 대학원에 진학했다. "공부를 좋아해서"라고 이유를 밝힌 조여정은 현장경험을 쌓은 후 기회가 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공부뿐 아니라 연기에도 욕심많은 조여정은 "앞으로의 행보가 계속 궁금해지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월화극 '자이언트' 김수현

"촬영 현장에서 연기할 때는 이런 말을 떠올려요. '긴장은 속으로 하고 링 위에서는 절대 아픈 척하지 마라' 너무 긴장하면 연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SBS 월화극 '자이언트'에서 중앙정보부 요원 이성모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는 김수현(22)은 작년 말부터 세 편의 드라마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여 왔다.

그러나 신인인 그가 '자이언트'에서는 정보석, 전작 SBS특집극 '아버지의 집'에서는 최민수처럼 대선배들과 작업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연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최민수 선생님과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얼어버렸어요. 정보석 선생님과 처음 대본 리딩 할 때는 숨도 잘 못쉬었죠. 그렇지만 선배님들을 어려워할수록 연기하기가 힘들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편하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1970년대를 배경으로 세 남매의 성장과 사랑을 다룬 드라마 '자이언트'에서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는 장남 이성모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다.

> "첫 연기때 너무 무서워 후들후들 떨렸는데 이젠 무대위서 놀아요"

지금은 연기에 푹 빠진 그이지만 어렸을 때는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고 한다. 고 1때까지 뭘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그를 연기자의 길로 이끈 것은 어머니였다.

"고 1때 어머니 권유로 연기학원에 갔어요. 처음 연기를 할 때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섭고 거부감이 많이 들었어요.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제가 무대 위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김수현은 데뷔 후 주로 상처가 있고 어두운 역할을 많이 해 왔다.

"역할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왜 연기를 하고 있나' '나는 지금 행복한가' 같은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에게는 하고 싶은 역할이 많다. 일상을 이탈한 청춘 캐릭터에 강한 흥미를 느낀다. 영화와 뮤지컬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한다.

"영화 '비트'나 '트레인스포팅' '벨벳 골드마인'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젊으니까 힘이 넘쳐 그런지 강한 역할에 관심이 많아요. 하하"

목소리에서 호기심과 함께 도전에 대한 자신감도 묻어났다. /연합뉴스